

GRACE 선교소식

2026년 9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몽골 TD와 GMI 은혜신학교 입학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토요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주일부터 대전 오메가교회(황성은 목사님 시무)에서 화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전 오메가교회는 황성은 목사님께서 2013년 청년 열 명과 함께 개척하여, 청년과 다음 세대 선교에 중점을 두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선교의 비전을 품은 교회로,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는 “**부흥하는 교회, 세상을 살린다!**”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매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집회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몽골 TD에서 렉터로 섬긴 박스카이 피택장로님과 부인 박미숙 권사님도 몽골 사역을 마치고 대전 오메가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여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미숙 권사님은 체장암으로 힘들게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번 선교를 결단하고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교지에서 강의도 하고 힘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 아니라, 이번 부흥회에도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구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 새벽에는 동탄 시온교회(하근수 목사님 시무) 특별새벽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금요성령집회에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9/13(주일) 다민족 기도성회: 9/13
- 선교학교 강의: 9/14
- 국제 총회 (장소: 독일): 9/22-9/25
-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입당 감사 및 임직식 예배: 9/27
- 동유럽 목회자 컨퍼런스: 9/28-9/30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토요일 미국으로 귀국하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다민족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다민족 기도회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땅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M국

강00 / 이00 선교사

지난 2023년 8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시작된 이 선교지에 드디어 소중한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첫 세례자가 탄생했습니다. 묵묵히 씨앗을 뿌리며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땅의 한



영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세례식은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묵묵히 밭을 갈고 물을 주었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결실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함께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걸음의 동행이 없었다면 결코 한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세례자가 끝까지 교육 잘 마치고 세례를 받고,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고, 이 땅에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잔지바르는 지금 일년 중 가장 시원한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에버그린 학교 건축을 진행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고, 작업이 계획대로 안되어 마음이 무겁고 앞이 캄캄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건물을 완성하고, 올해 1월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대로 이사까지 마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저희는 너무나도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동안 세를 들어 사용하던 건물에서 학교를 운영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새로운 학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제는 새 건물로 학교를 옮겨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학교건축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그래서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 동안의 선교 사역을 보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뵙지 못했던 동역자님들과 다시 만나 교제하고,

함께 지나온 사역의 시간을 나누면서 선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삼겹줄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사역과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욱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의 현지 스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과 믿음으로 학교를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학교가 아니라, 현지의 스텝들이 믿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 가며, 학생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성경대학 학생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훈련시킬 것을 믿으며 저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사역과 성경대학 사역을 통해 잔지바르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엇을 많이 이루는 것보다, 현

지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립하고 스스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 주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잔지바르의 학교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잊지 않고, 현지에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잔지바르의 학교와 스텝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성경대학의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자 이야기

비자 갱신신청을 일찍 하였는데 결국 비자 만료일(2026. 5. 20)이 지나기까지 비자를 받지 못하여 한국에 들어갔다가 현재 여행비자를 받아 잔지바르에 입국하였습니다. 지금 비자갱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순전히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이야기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여윈 손을 놓고 돌아설 때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떠나 왔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은아들 은석이는 파주 운정으로 이사하였는데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신실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M국

유00 / 킨000 선교사

부산 구포교회 청년 단기팀 방문

부산에서 젊은 청년들이 예수마음을 방문하여 피난민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구포교회 청년팀이 가져와 주신 사랑이 예수마을 예배당에 예쁘게 자리잡았습니다.



매주 예배와 나눔의 시간

피난민 가족들이 늘어 안타깝지만 또 풍성해진 예배시간에 감사하며, 성경 말씀을 전하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심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엌도구 나눔

계속된 격리 날에 TOK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나온 여러가지 부엌살림도구들을 나누었습니다. 몸만 빠져나온 피난민들은 당장 요리를 해 먹을 부엌도구가 부족하던 참에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새가족 입주

아이들만 예배에 참석하던 '어거스틴'네와 로이커 인근 마을에서 피난나온 '텃폰신'네가족들이 새로 입주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7.2와 7.4 강도의 두번의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베네수엘라 수도근교에서 일어나 엄청난 충격을 겪었습니다. 국제공항도 지진피해로 인해 폐쇄되었고, 수백 채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6천명의 공식 확인된 사망자와 5만명 가까운 실종자(사망으로 추정), 그리고 최소 1만 6천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진 소식에 GMI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교회와 NGO 등에서 구호금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곳들에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MI, 사랑바구니, G파운데이션, 한국의사회 등).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베네수엘라가 주님을 더 깊이 찾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말씀대로 천지를 흔들며 소문과 전쟁과 지진으로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대학생 사역의 확장

그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2달에서 2달 반, 콜롬비아의 Ibague, Cucuta 그리고 엘살바돌의 현지팀들과 동역하여 대학생 사역을 세웠습니다. 우리 팀들은 돌아왔지만 그동안 우리 팀을 통해 훈련 받은 현지팀들이 계속해서 대학생 사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통해 더 많은 나라들에 대학생 사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 방문

6월 19일~30일까지 두명의 제자와 함께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터키는 선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만 들어서, 터키로 떠나기 전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를 기도 했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공동체를 만나면서 주님께서 터키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았고 더 많은 비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들을 방문해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전도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들 깊은 곳에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고 복음 전도의 큰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터키 선교와 세계선교를 향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콜롬비아 6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

7월 둘째주에는 75명의 콜롬비아 목회자를 모시고 6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송종호 목사님이 스피리쳐 리더로 최은용 집사님이 렉터로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과 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75명의 섬김이들과 함께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콜롬비아 사랑의 불꽃 사역을 통해 작년에 콜롬비아 신학교를 시작했고 내년엔 신학교 2기가 입학합니다. 또 신학교 목사님들을 통해 콜롬비아 2 도시에 중보기도 센터가 세워졌고 6개 대학에 대학생 사역이 되고 있으며, 여러번 복음 컨퍼런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열매가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콜롬비아 아예과 돌리의 포스퀘어 교단 (Foursquare Church)의 교단장님들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셔서 함께 사역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과도로 땅을 여셔서 귀한 사역이 시작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7기 글로벌 리더쉽 스쿨 (ELG 7기)

9월부터 11월까지 75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7기 글로벌 리더쉽 스쿨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처음 1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리더들이 없었



는데 이제는 6명의 리더들과(ELG졸업생) 5명의 이사진(목회자)들이 함께해서 더 양질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저도 체력과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한달의 합숙훈련이 중요합니다. 좋은 시작과 학생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합숙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이야기

예림이 예준이가 올해 1년 단기비자를 갱신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예림이는 이제 20살 성인이면 법적으로 가족 단기비자를 줄수없다고 하며,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밖으로 나가서 아주 새롭게 비자 신청을 하고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민국에서 두 아이의 비자를 갱신해 주었고, 곧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엔 비자를 받으면 올해 안에 5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는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올해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준이와 예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저희들에게 독립되어가는 과정과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더 굳건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바쁜 사역에 구호활동까지 7월 8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지나치게 되는 것들이 생기고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앞으로 사역을 집중하고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필리핀

성은식 / 김해경 선교사

세부 올랑고섬 단기선교

저희들은 7월에 안산빛나교회 단기팀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현지 교회와 연합 전도여행을 세부 올랑고 섬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낯선 환경과 쉽지 않은 여



건 속에서 K-Food를 준비하여 학교에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필리핀의 작은 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K-pop 콘서트

안산빛나교회 J-tree, 색소폰 팀들이 구성되어 문화와 음악 댄스로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5, 5, 5 Three Five

Three five 5년 동안 5개의 가정교회 개척 5명의 선교사 파송 드디어 첫번째 가정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레이스 캠프 중에 만났던 따따이,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집밖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따이는 그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고 응답되었습니다.

티바간 교회 청년들과 매주일 예배를 따따이 성도 집에서 2달 째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매주 예배 후에 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중에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해졌으며 동네 입구까지 우리를 마중 나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사역자를 세워 가신 역사이십니다.

이곳 사역을 맡은 청년은 Angeline 입니다. 가정교회를 잘 양육하고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알바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2012년의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온 알바니아

미라 선교사의 병원치료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탄자니아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찾아왔으나, 결국 길이 열리지 않아서 GMI 선교부 본주와 논의 끝에 알바니아로 가는 것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자니아행을 결정하면서 해외 체류 연장 신청없이 알바니아를 떠나왔기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게 되면 비자가 만료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알바니아행을 권고받아 자세히 알아보니, 1년 안에만 입국하면 영주권은 유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되도록 빨리 8월 초순경에는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접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2년 받은 말씀이 기억나면서 알바니아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마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마치 2012년 자비량선교를 위해 한 종묘회사에서 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섬길 교회를 찾기 위해 주변 교회들을 찾아다니게 되었을 때 매주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그리고 다른 설교말씀들을 들었지만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잠시 휴식과 숨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지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알바니아 땅으로 순종하며 돌아왔던 그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현지 부부(티모티/에게)에게 물질을 물 붓듯 부으셔서 저희를 후원케 하시면서, 훈련받고 파송받게 하셨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오른손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끄셨던 주님이 지금은 이미 떠났던 알바니아 땅으로 다시 이끌고 계심을 생각하니,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육신의 생각 회로를 멈추지 않고는 주님께서 그 뜻을 그려가시게 할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음성이 따끈따끈하게 마음을 어루만질 때 비행기표를 끊고, 딱 일주일 준비해서 알바니아행에 올랐습니다. 그저 주

님의 세밀한 인도하심만은 놓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보다 수용하기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탄자니아행을 위한 시간들과 탄자니아에서의 시간 그리고 돌아와서 치료받고 알바니아로 돌아온 이 시간을 이제는 저희에게 주어진 ‘안식년’으로 받았습니다. 알바니아에 도착 후 GMI선교사훈련원 원장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10년 이상을 한 장소에서 지내다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온 것도 잘한 것이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알바니아의 재사역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시간들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term(2012~2025)은 이전에 해오던 사역 방식을 쫓아 영어를 사용해 한국어 교육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사역을 이끌어 왔다면, 이번 term(2026~)은 알바니아어를 사용하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커넬트 지역교회에서 동역초청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이전까지는 생활 언어로 사용했던 알바니아어가 이제는 사역 언어로 필요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빛을 비취가면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P국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지역을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새롭게 맡겨진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맡겨진 사역들은 어느 하나 짧은 시간 안에 열매를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긴 호흡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길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시편 27:14) 앞서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맡겨 주신 길을 충실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 한국어학당

현지 대학교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한국어학당이 감사하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MOU와 공간, 수업 운영과 행정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오는 9월 초 첫 시범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모든 말과 태도,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타 단체에서 파송되신 한국어교육 경험에 있는 선생님께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학당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운영요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잘 붙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부 S지역에서 이어지는 동역

지난달 P국 북부의 S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접근과 생활이 쉽지 않은 오지이자 험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약 15년 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들어와 지금까지 홀로 B민족을 섬기며 산지와 마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 온 현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년 전 이 지역에 현지인 사역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하여 만나게 된 분입니다.

강한 시아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는 지역이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가 군사시설 안에 위치해 있어 이들을 자유롭게 초청하고 지속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군사시설 밖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센터교회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는 서로 든든한 동역자로 서서 S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목사님과 함께 복음에 반응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사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센터교회를 위한 길과 필요한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M민족의 마을

최근 신도 지역의 M민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다음세대를 위한 기숙사 건축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해 온 곳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엇보다 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났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이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센병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후 회복되어, 지금까지 지역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의 이야기는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을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저희와 연결해 주셨는지 더욱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과 믿음의 씨앗이 있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 마을과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숙사를 통해 M민족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믿음과 좋은 가치관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이 장차 자신의 민족과 지역을 섬기고 이끌어 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방문을 통해 건물과 시설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현지 리더들이 말씀과 사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리더들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역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피드백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동역하며 이들을 세워 가고자 합니다.

한편 현장의 실제적인 필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 교회에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배 장비와 시설 역시 부족합니다. 앞으로 기숙사 건축과 함께 교회의 필요한 환경들이 조금씩 보완되고, 무엇보다 현지 리더와 다음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이 마을이 M민족을 섬기는 믿음의 거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새 학기를 위해

기쁨이와 팔복이도 이번 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언어 속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에는 행복이 아닌 복을 말하는 이유

<1분단상 156-9월호>

- 김대규 장로

복된 소식, 곧 복음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다. 복음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주안에서의 변치 않는 복을 말한다. 행복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한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이기에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다.

왜 그럴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주시는 복은 불변이기에 그렇다. 이 복은 현재는 물론, 장차에도 누리는 복된 상태를 말한다. 이 복을 받은 상태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복락이다.

이 복락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묘사한 것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16:11) 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하는 것은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며,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롬 1:16).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말씀한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직접 선포한 말씀이 있다.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 첫 부분이 “복 있는 자들”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이다.

원래 “복 있는 자들(헬. μακάριοι: 마카리오이)”의 의미는 고대 헬라문화에서는 신들과 신들의 영역에 속한 존재들의 행복을 표현하는 말이었고, 이후에는 매우 복된 인간에게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던 “복 있는 자들” 곧 “마카리오이”이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여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에 “마카리오이”라고 선언하셨다. 죄와 세상의 타락을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마카리오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8복에 속한 자들이 “마카리오이, 복있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초월한 영역의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유한적이나 예수님이 말씀한 “복 있는 자”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마카리오이”이다.

“복 있는 자들”은 세상의 만족을 나타내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시편1:1에서 “복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אֲשֵׁרִי(아쉬레이)이다. 이를 칠십인 역에서 헬라어

μακάριος(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의 단수)로 번역하였다. 이 뜻은 의인의 삶 전체를 “복 있는 사람(마카리오스)”이라고 부른 것이며, 신약의 산상수훈은 시편 1편의 복의 개념을 계승한 것이다. 세상의 행복과 달리 “복 있는 자”는 영원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 있는 자”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자체가 복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사는 과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산 자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헬. ὁ νικῶν, 호 니콘)”라고 부른다. 직역하면 “계속하여 승리하는 자”, “이기는 삶을 지속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며(롬8:29),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삶을 끝까지 지켜 승리한 자이어야 한다. 곧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복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뜻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며, 마침내 “이기는 자”로 완성되어 영원한 유업과 복락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잔지바 이슬람 영혼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게 해 주세요.
2. 에버그린 7학년 52명 아이들이 10월 12-16일까지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에버그린, 노아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와 산성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3. 제 11기 성경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고 말씀을 공부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졸업생들이 교회 개척부지를 순전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비자를 순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함과, 두 아들들이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고, 직장을 순전히 얻도록
6.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N국 김OO / 오OO 선교사

1. 2개월 안에 농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2. H 은행 계좌가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 이단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 이들이 추방 당한 후 저의 은행계좌가 닫혔고 다시 만들고 있는데 계좌가 열릴 수 있도록
3. SPBA 바ível 칼리지 8월 성경 통독이 끝나고 9월 부터 수업에 들어갑니다 신입생들 믿음으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4. N국 정부의 선교사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영 분별력을 가지고 N국을 섬길 수 있도록
5. 하나님 말씀 사역과 병 고치고 축사하는 사역들이 성령님의 거룩한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P국 이OO / 장OO 선교사

1. 9월부터 시작되는 한국어학당 시범수업과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함께 학당을 세워갈 필요한 운영요원이 잘 연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S지역의 B민족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센터교회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3. M민족의 현지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고, 기숙사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가 믿음과 교육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4. 기쁨이와 팔복이가 새 학기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도 어려움 없이 적응하며 즐겁게 배우도록
5.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고 좋은 차량을 합당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바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1.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2. 생활언어가 아닌 사역언어로서의 알바니아어의 진보를 위해
3. Kënetë 지역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발견하고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도록
4.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결정과 사역에 필요한 차량 구입과 재정을 위해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필리핀 성은식 / 김해경 선교사

1. 필리핀 전지역에 큰 폭우로 인하여 교회들과 성도들의 생활터전이 침수되어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공급하심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매달 둘째주에는 구제의 섬김으로 온 성도들에게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댄동산 선교회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3. 첫번째 가정교회 사역을 맡은 청년 'Angeline'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현재 선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크기가 작아서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는 전도 현장에 차량 렌트를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탈 수 있는 차량이(12인승)를 마련할 수 있도록
5. 필리핀이 더 이상의 선교지가 아닌 선교하는 교회로 제자들을 양성하여 열방에 파송 할 수 있도록
6. 성은식, 김해경 선교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M국 유00 / 킨000 선교사

1. 예수마을의 피난민 가정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잘 지내도록
2. 새로운 가정이 예수마을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3.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비쉬켄 TD #23 (10/2-10/14)
SL: 설성훈 목사
렉터: 박병일 장로
문의: 박병일 장로 (213-999-1737)
- 네팔 QT 세미나 및 헌당예배 (10/18-10/26)
SL: 신영자 목사
리더: 이미선 권사
문의: 조범준 집사 (714-222-8628)
- 베네수엘라 AFA #12 (10/19-10/27)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안영숙 전도사
문의: 562-665-0607
- 인도 전도폭발 임상훈련 및 개척선교 (10/20-10/24)
SL: 이민 목사
리더: 신사무엘 집사
문의: 음진형 집사(714-345-8772)

- 은혜동산 18기 (10/23-11/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윤만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T/M: 9/8부터(매주 화), 7PM, VC119

- 인도개척선교 모집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T/M: 9/1부터(매주 화), 7PM, 웨딩채플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